

# 순정이

그리스도왕 대축일  
제 1 독서 : 에제 34, 11-12, 15-17  
제 2 독서 : 1고린 15, 20-26, 28  
복 음 : 마태 25, 31-46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태 25, 40).

## 강론

### “하느님의 뜻을 이룩할 최선의 선택”

박인호 신부 / 교육국장

오늘은 연중 마지막 주일이며, 그리스도왕 대축일이다. 전례력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는 더욱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지난 한해의 우리의 모든 삶을 정리하면서 왕이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짐하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세상의 종말, 새롭게 펼쳐질 영원한 삶을 그려 보자.

사도 바울로는 세상의 종말을 우주 완성의 한 단계로 이해하면서, 결국 인간뿐 아니라 우주만물이 그리스도께 수렴되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며 그래서 전우주의 구원과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친 바 있다. 바울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영원한 우주를 노래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 축일의 주제이다. 따라서 오늘의 성서는 목자이신 하느님, 재판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들려주고 있다.

오늘의 마태오복음은 최후의 심판 내용으로 그리스도교 가르침의 핵심이다. 세상 종말, 마지막 시기, 우리의 구원 여부가 결정될 가치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하느님의 마지막 질문으로 ‘너는 동시대에 살았던 너의 이웃, 구체적으로 너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약하고, 짓밟히고, 억울하게 고통당한 가난한 너의 이웃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라는 물음이다. 이 시대에 과연 굶주리고 목말라 하며,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느님께 대한 사랑, 그리스도께 대한 애정은 바로 우리 주변의 약하고, 가난하고, 진실된 사람들을 통해서만 확인된다. “똑똑히 들어라.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최후의 심판의 판결 내용을 그리스도께서 앞당겨 들려주신 것이다. 이 판결문은 바로 너와 나의 교육을 위한 하느님의 경고이며 정신차려 잘 행하라는 분부이기도 하다.

## 소리

### “죽음과 죽임을 넘어서”

위령 성월이 끝나자마자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는 성탄절을 향해 새해가 시작된다. ‘죽음’에 이어 ‘탄생’이 오는 이 정신없는 신비!

일가죽 몰살과 연쇄살인의 이 시절에 우리는 십자가 죽음이 너무 어렵고도 너무 간단한 사건인 것을 잘 알고 있다.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으면 그것이 하느님의 삶의 방식이 된다는 진리!

우리나라의 현대 1세기는 국가 멸망·식민지 체험·동족 전쟁·군사 통치로 이어지면서 ‘죽임’에 길들여진 삶을 살아야 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악의 세력에 이바지하는 헛된 것이었다. 그리스도교적 죽음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몰리는 역사는 발전하지 못하는데도, 그런 헛도는 역사 속에서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잘도 산다.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 냄새가 우리네 역사적 삶과 대단히 비슷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는 그 죽음 냄새에만 길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동양적 사고방식으로는, 한국 역사 현실 안에서는 정말 ‘부활’의 참맛은 모르고들 있는 것은 아닐까. 답답하고 원통하지만 모두들 세탁기 돌리고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으면서 아, 편리하다, 연방 탄성을 지르면서 우리는 이대로 되는 것 없는 한해를 보내야 하는가?

새로 태어날 아기예수는 정말로 사람들의 정신나간 축하 속에 누더기가 다 되어서 남의 밥이 되려고 말의 밧그릇 속에 뉘어질 것이다.

새로운 전례력의 한해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섭고 죄송한 마음으로 다가와야 할 것 같다. 우리는 올해 이웃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참혹한 십자가 하느님 앞에 못할 짓을 얼마쯤 했는가? 절!

### 순정이 산책



진짜 기도는?

# “천주교회와 성경”

“천주교회에도 성경 있어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너무도 어이없는 질문이라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으나 이내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묻는 사람의 무식을 나무라기보다는 그러한 질문이 가능케 한 우리 측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오늘은 성서주일-평소 성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는 한 주간이었으면 한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라서 말하기도 쑥스럽지만 우리 교회는 계시의 원천으로써의 성서의 역할을 한 번도 소홀히 해본 적이 없다.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모든 시대를 위하여 단 한 번 기록된 것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변치 않게 전하며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말 가운데 성신의 말씀을 반영시킨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교 자체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힘으로 자라고 지배를 받아야 한다. 사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성경 안에서 당신 자녀들을 언제나 친절히 만나주시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는 지탱과 힘이 되고, 교회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힘, 마음의 양식, 영신생활의 깨끗하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힘과 능력을 간직하고 있다”(계시현장 21항).

“그러므로 모든 성직자들, 특히 그리스도의 사제들과 그 외에 부제나 전교회장으로서 말씀의 직무를 정당히 이행하는 이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열심히 연구하여 성경과 친숙해져야 한다. 그 이유는 특별히 거룩한 전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포하는 풍부한 재화를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에게 주어야 할 사람이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적으로만 헛된 설교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공의회는 또한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 특히 수도자들이 자주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숭고한 지식’을 배우도록 각별히 또한 강력히 권하는 바이다. ‘사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계시현장 25항).

그렇다. 성서적 바탕이 없는 신심은 자칫 그리스도교의 탈을 쓴 거짓 신앙일 수가 있다. 교회의 모든 제도와 교의는 물론 어느 단체나 개인의 신심 역시 항상 성서에 의해 비판되어지고 반성 되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 또 교회 내의 여러 신심운동과 제단체의 모습, 그리고 나의 신앙은 어느 정도 복음적일까?

## 미사해설 18

### ‘매일미사’에 대한 찬(贊)·반(反) 의견

주일이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무리들이 어디론가를 향하여 바쁘게 움직인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 특별히 말도 하지 않고 이튿날을 불히지도 않았지만 개신교 예배당으로 가는지 천주교 성당으로 가는지 대개는 알아 맞힐 수가 있다. 성서를 휴대하는 모습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 잘 장식된 빨간 성경을 가슴에 꼭 껴안고 가거나 정성껏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저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 반면에 성가책 하나, 아니면 기도서 하나 달랑달랑 들고 다니는 그 사람들은 또 누구인가? 몇 해 전부터 소위 ‘매일미사’란 책이 배포되면서부터는 ‘성서’를 들고 미사에 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이 ‘매일미사’ 책에 대한 의견에는 찬·반이 엇갈린다. 어떤 이는 극열히 반대하고 어떤 이는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대하는 측의 가장 큰 이유는 이로 인해 그나마 보지 않는 성서를 더욱 안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찬성하는 입장에서서는 그래도 그토록 편리하게 해놓으니 안 볼 사람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그리고 서로의

주장은 정반대이지만 사실 목적과 우려는 한 가지임을 알 수 있다. 즉 반대하는 편이나 찬성하는 편이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든 성서를 많이 읽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단지 ‘어떤 방법이 성서를 보다 더 많이 읽게 하는 방법일까?’ 하는 방법론적인 견해 차이일 뿐이다. 따라서 ‘매일미사’ 발행의 찬·반을 논하기보다는 ‘성서를 열심히 읽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싶다. ‘매일미사’라도 있어 그나마 성서를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면 다행스런 일이지만 ‘매일미사’가 나오므로 집안에 있는 성서가 장식물처럼 되어 먼지가 잔뜩 끼게 되었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매일미사’는 성서의 일부를 발췌했을 뿐 ‘성서’는 아니라는 것이다.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 소개되는 토막난 성서문구만 가지고 성서의 그 깊은 뜻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매일미사’는 평소에 성서를 많이 읽는 사람들의 미사참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 뿐 성서를 대신하여 만들어진 책이, 아님을 분명히 해두어야겠다.

철저한 개인지도

**관 미래속셈학원**

정 회 연 (다미아노)  
이 경 애 (로마나)

북부시장 앞  
☎ 75-2534

주네합니다

제 60회  
**성서 주간 대잔치**

기간 : 11월 26일 ~ 12월 1일  
■ 특별 할인 ■ 기증품 증정

전주 성바오로 서원  
☎ 252-3398 중앙성당옆

웨딩 드레스 전문점

**신 부 의 집**

최 영 자 (헬레나)  
☎ 88-6951

동서관동로 신탁은행 앞

**사무장 채용**

1. 자격: 고졸 이상 기혼자로 45세 미만자  
운전면허 소지자, 품위미(취급) 능력자 우대
2. 제출서류: 자필 이력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최종학력 증명서 1통  
신원보증서 (보증인 2명) 1통
3. 제출마감: 1990년 12월 9일  
기타 자세한 내용 문의처:  
**효지동성당** ☎ 223-3821



잡 관 /

‘동양화학 T.D.I. 군산공장 철거 운동’은 훌륭한 신앙 행위

작년 12월 8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그의 신년 메시지에서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저의 형제 자매들에게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건강한 환경을 보전하려는 신앙인들의 투신은 창조주 하느님께 대한 신앙에서 직접 나오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현재 ‘동양화학 T. D. I. 군산공장’의 철거를 위한 천주교 전주교구 군옥지역의 지속적인 노력은 현대를 사는 신앙인들의 훌륭한 신앙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27일에 이어 11월 13일 ‘동양화학 T. D. I. 군산공장’의 건설 허가를 취소해줄 것을 9만4천7백7십8명의 서명인들의 이름을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 공장에서 사용하는 ‘포스젠’이라는 가스가 제2차 세계 대전중 수백 인명을 앗아간 독가스로서 만에 하나 그 가스가 누출될 경우 군옥지역 30만 인구는 물론 이리 근접 지역까지의 생태계가 파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얼마나 막대한지는 1984년 인도 ‘보팔시’의 미국계 M. I. C. 화학공장의 가스누출 사고로 5천 명이 사망하고 20만 명이 중독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회사측에선 ‘절대 안전’을 주장하고 있으나 ‘고장없는 기계가 없는 법’이라 미리 막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판단되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른 방법의 하나로 군옥지구 사목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동양화학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 먹는 하마, 파워크린, 동양화학 상품 농약 일체’ 등. 군산 시민은 물론 모든 신앙인들은 함께 뭉쳐 닥쳐올 악을 없애 하느님께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이는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신앙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교 구 소 식

1. 추계 사제 총회: 11월27일(화) 오전10시30분 천호 피정의 집.
  2. 사무장 연수회: 11월29일(목) 오전10시 가톨릭센터 회의실.
  3. 본당 사무회장단·교구단위 단체장 연수: 12월1일(토)-2일 천호 피정의 집, 회비 2만원.
  4. 전북일보 천주교 고정란(7면) '성당의 종소리' 안내: 26일(월)-시대의 정표를 보아라(정인섭 선생), 28일(수)-장발장(최용준 신부), 12월1일(토)-연옥이란? (홍보국).
  5. 가톨릭 방송인 대회: 12월1-2일 한마음 수련장(의정부) 대상-UNDA/KOREA 집행부, 문화방송, 한국방송공사, 평화방송, 기독교방송 신자, 교구 UNDA위원회 회원.
  6. 고창 성당 교육관·사제관·수녀원 축성식: 11월25일 오전11시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행사에 많은 참석바랍니다.
  7. 성모의 기사회: 12월1일(토) 10시 효자동 성당.
  8. 전화번호 변경: (해성중)교무실 253-6035, 제2교무실 253-6036, 교장실 253-6037, 종교감실 253-6038, 합숙소 253-6039. (해성고)교무실 251-9711, 제2교무실 251-9712, 제3교무실 251-9713, 교장실 251-9714, 서무실 251-9735, 학생부실 253-1365.
  9. 테클라 성소모임: 12월2일 오후2시 성마로 서원2층 (0652)252-3398.
  10. 살레시오수녀회 성소모임: 12월2일 오후2시 연지동 성당 수녀원 (0681)33-2578.
  11. 사랑의 쉼터수녀회 성소모임: 12월2일 오후2시 동산동 성당 수녀원 (0652)77-4212.
- ※ 축! 명영: 30일(성안드레아)박종근, 김태운, 박성팔,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각종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종이입니다. 헌 신문지를 비롯한 각종 종이를 재회수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직장에서도 사무용품 및 종이를 아껴쓰는 습관을 기릅시다.

양재·한복·홈패션  
**노라노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건안드레아)  
동부시장앞·민정당시원  
☎86-2715

1991학년도  
**성모 유치원 원아 모집**  
1. 원아 자격: 만 5~6세  
2. 원서교부 기간: 12월 1일~5일 (오전9시~오후3시)  
3. 원서접수 기간: 12월 6일~8일 (오전9시~오후3시)  
1.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성모유치원 (동양성당)  
**전주 성모 유치원 ☎77-1712**

도시 감각의 패션구두  
**브랑누아**  
김 순 희 (마키엘라)  
전주지점 (오거리)  
코아백화점 개점  
☎88-5043



송학동 성전 건립 기금 마련 축복권  
●축복상 당첨지를 찾습니다  
번호: 281221번 (승용차)  
11월30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임의대로 처리하오니 착오없이 시기 바랍니다.  
송학동 성전 건립 추진위원회

1991학년도  
**성심유치원 원아모집 요강**  
1. 대상: 만 4세~6세 건강한 어린이  
2. 인원: 만 4세 40명, 만 5세 15명, 만 6세 40명 (총 95명) 선착순 모집  
3. 원서 교부: 12월1일~5일까지  
4. 원서 접수: 12월6일~7일까지

홍부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농부보쌈**  
오 재 천 (안드레아)  
정 봉 교 (마키엘라)  
효자동 우진아파트 앞  
☎223-0297~8

25분 완성  
**전북칼라현상소**  
결혼·화갑·야외 촬영  
대표 오 희 웅 (암브로시오)  
전주시 고시동1가 연금매점 남쪽 (오거리) ☎83-5335

# ☐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

사제관 77-1713 수녀원 5-1714 주임신부 황인규  
 \*중앙 사무실 77-1711 유치원 77-1712 보좌신부 한병현  
 \*그리스도왕 대축일 사목회장 황의목

- 1991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각분과위원장 및 모든 직신단체장은 1991년도 사업계획서를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쉬는교우방문: 27(화)~30(금) 13구역~19구역, 구역장, 반장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3. 신축성당을 위한 2차현금: 다음주일 모든미사중에 있습니다. 4. 대림절 불우이웃돕기 위한 성미·성금운동: 다음주일(대림1주일)부터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5. 전례분과위원회: 28일(수) 저녁미사 후 장소-2층교리실, 참가대상자: 각 성가대단장, 지휘자, 모든 미사해설자, 모니카회장, 상지회장, 대건회장. 6. 유아세례: 다음주일 오후3시, 부모는 물론 대부·모도 꼭 참석 바랍니다. 7. 모임: \* 계속형제회-오늘 오후2시 \* 모니카회-27일(화) 오전11시 \* 사목회의-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8. 주일반 예비자 모집: 11월중 계속모집하오니 정성껏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성가대 단원모집: 성탄절을 기해 어머니, 청년, 학생성가대 단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것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91학년도 성모유치원 원아모집

FAX 251-3850 사제관 251-1912 주임신부 왕수해  
 \*금암 사무실 251-1911 보좌신부 251-1913 보좌신부 이서정  
 \* 사목회장 정주헌

1. 애령회 기금을 위한 특별헌금: 오늘 미사중.
  2. 연도대회: 오늘 오후2시.
  3. 병자방문: 30일(대상자 사무실에 신청).
  4. 사목회: 차주 공식미사 후.
  5. 해설자·복사단(성인) 교육: 차주 공식미사 후(성당).
  6. 9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12월2일까지.
  7. 금주 전례: 해설-김홍민 독서① 강병주 ② 박순자 봉헌-김창선 부부 복사-이대용, 정희린.
  8. 차주 전례: 해설-김동진 독서① 박종철 ② 박인자 봉헌-나인구 부부 복사-장유진, 김정수
  9. 미사 안내: 자비의 모후Pr. 차주-로사리오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934,530원 □ 교무금: 930,000원

사제관 72-3389 주임신부 성태수  
 \*덕진 사무실 252-2182 보좌신부 오성기  
 수·유 72-1222 사목회장 김낙현

- \*오늘은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1. 예언자의 모후 꼬미씨들 회의: 오늘 오후2시. 2. 전례분과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3. 구역장·반장모임: 29일(목) 오후2시. 4. 병자 봉성제: 30일(금) 환자가 있는 가정은 미리 신청하세요. 5. '90년도 봄(4월15), 가을(9월15) 청년 영세자들 모임: 30일(금) 저녁7시30분. 6. 진북유치원 원아모집: 원서 교부-12월3일~7일, 원서 접수-12월10일~13일, 대상-취학전 어린이(만6세). 7. 어머니·청년 성가대 성탄성가 연습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8. 사목회: 30일(금) 저녁미사 후. 9. 금주 가정방문: 11월27일-덕진4반, 28일-덕진5반. 10. 금주 청소: 능하신 동정녀Pr-12월1일 오후2시.
- 지난주 봉헌금: 1,056,750원 □ 교무금: 875,000원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손순형  
 \*동산동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영철  
 수녀원 77-4212

1. 모임: 애령회·자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꾸리아 월례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구역방문: 28일-동산4, 29일-팔복2, 12월1일-동산8. 3. 혼인조당합동혼인예식: 12월11일(화) 저녁미사 후. 준비사항(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세례증명서, 도장, 증인). 4. 성탄준비판공성사: 매주일, 평일 미사 전후(판공성사표는 사무실에 있음).
  5. 각분과별 91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30일까지. 6. 사목회 모임: 12월1일(토) 오후8시 사제관. 7. 구역미사: 금주(화)-동산5구역. 8. 나눔집회: 금주(수)-팔복2구역.
  9. 전례안내: 금주 해설-이석규 ① 이의준 ② 한명자 차주 해설-김진태 ① 이준삼 ② 최옥기.
  10. 성당청소: 금주-바다의 별. 차주-공경하를 어머니.
- 지난주 봉헌금: 383,000원 □ 교무금: 425,000원  
 □ 수요헌금: 54,200원

\*서신동 수녀원 74-9262 사제관 74-9261 주임신부 박성필  
 사무실 74-9260 사목회장 박병열

1. 예비자 교리시간: 학생반-매주 토요일 저녁미사 후, 일요반-매주 일요일 공식미사 후, 목요반-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2. 성서 공부: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 3. 성가 연습: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4. 성가대 입원: 대상-김옥기, (남) 단장-김남곤, (여) 단장-유현숙, 총무-김인숙. 5. 차주에 2차현금 있습니다. 6. 본당 조경: 오늘 전신자 오전9시부터(삼, 팻이 지참).

7. 엠마우소회: 29일(목) 저녁미사 후. 7. 구역장 및 반장모임: 12월1일 오전11시. 8. 금주 청소: 5구 및 어은골. 차주-1구역. 9. 금주 모임: 공식미사 후-방주회, 차주-사목회, 성모회, 애령회.
  10. 금주 전례: 해설-이민순 독서① 이일상 ② 임명희 차주 해설: 해설-김형식 독서① 김남곤 ② 이영희
- 지난주 봉헌금: 411,590원 □ 교무금: 422,000원

\*송천동 사제관 74-8873 사무실 74-1004 주임신부 김태운  
 수녀원 4-1142 사목회장 김인철

- \*축! 영명 성안드레아 30일 본당 신부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축하식-25일 공식미사 후. 1. 오늘의 모임: 요셉회, 교사회. 2. 사목회: 27일 저녁미사 후. 3. 제대회: 27일 오후3시. 4. 가정방문: 28일-전당리, 29일-미산리. 5. 연말 세금정산: 사무실에 신청바람. 6.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일제등록: 사무실에 접수바람. 7. 금주 본당청소: 4구역 1일 오전10시. 8. 금주 전례: 해설-이건창, 독서-봉헌-문두봉, 최진순 기도-소태영, 최경남 차주 전례: 해설-이길호 독서-봉헌-김재권, 임옥선 기도-문두봉, 최진순. 9. 성지개발: 11구역 3만원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617,520원 □ 교무금: 661,000원  
 ○ 평신도주일: 238,570원

\*수정지 사제관 76-1320 사무실 252-7366 주임신부 김동준  
 수녀원 252-9567 사목회장 김경주

1. 오늘: 그리스도왕대축일. \* 모임-요한회.
  2. 모악산등반: 오늘 12시반에 구이중학교 정철·도시락 각자 참. 갈매반 본당버스 무료운행. \* 주회-푸른숲.
  3. 유아세례: 29일(목) 오후6시로 변경.
  4. 병자방문: 30일(금) 오후에.
  5. 구역장 회의: 1일 오전10시.
  6. 다음주일: 대림제1주일(B해시각) \* 모임-성모회, 푸른숲.
  7. 사목회 정기총회: 12월4일(화) 오후8시. 강당에서, 대상-사회위원 전원, 각단체장, 구역장, 반장, 감사, 교문.
  8. 미사안내(차월): 평화의 모후.
  9. 청소(차월): 월-바다의 별. 토-그리스도의 어머니.
  10. 금주 전례: 진북2동3구. 차주 전례: 진북2동4구.
  11. 성당성가연습: 금요일오후 7:30.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람.
- 지난주 봉헌금: 741,830원 □ 교무금: 1,180,000원  
 □ 2차헌금: 314,760원

\*인후동 사제관 86-8876 수녀원 86-8875 주임신부 서용복  
 사무실 86-5022 사목회장 정수일

1. 꾸리아 월례회의: 25일 오후2시.
  2. 유아세례: 25일 오후7시.
  3. 성가대 단합대회: 26일 오전9시.
  4. 판공성사 성경읽기: 로마서전부.
  5. 판공성사시작: 1일부터. 6. 판공성사: 성사표 가지고 보세요.
  7. 축! 결혼: 25일, 12시, 신랑-서한철, 신부-오영희 데려사.
  8. 1991년 사업계획서 제출: 각 분과위원장 및 직신단체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12월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성사표는 평일만 드립니다. 가족주민등록번호를 교적에 정리하고 있으니 보험카드를 가져오세요.
- 지난주 봉헌금: 938,470원 협조에 감사합니다.

\*호성동 사제관 78-0075 사무실 78-1140 주임신부 정양현  
 수녀원 78-0094 사목회장 박대규

- \*본당내 만남의 장에서 차찬찬과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갖지않으시렵니  
 \*다음주는 교회 전례력의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 첫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면서 회개와 보속으로 대림절을 지냅니다. 1. 꾸리아: 오늘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다음주 공식미사 후, 세례방을 유아가 있으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3. 구약장 월례회: 다음주 목요일(12월6일) 어머니미사 후. 4. 사목회 월례회는 12월 둘째주(12월9일)에 있습니다. 5. 91년도 크렌다판매: 1부당 1,000원. 6. 12월중 성서담당: 월-지혜로워신 동정녀Pr. 토-티없으신 모후Pr. 7. 미사안내 금주-애덕드 모후Pr. 차주-모든 성인의 모후Pr. \*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계신 분이 누구이신가! 삭막하기만한 세상, 그러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매주일 미사후.
- 지난주 봉헌금: 559,440원 □ 교무금: 721,000원  
 □ 241,910원